

- 주요 뉴스: 미국 FOMC 의사록, 조기 금리인상 및 양적긴축을 논의
 - 미국 2021년 12월 ADP 민간고용, 예상치 큰 폭 상회. 오미크론 영향은 제한적
 -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, ECB는 인플레이션 전망 상승 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
 - 중국 인민은행, 춘절 연휴 앞두고 유동성 공급에 나설 계획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준의 통화긴축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
 주가 하락[-1.9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상승[+6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FOMC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파적이라는 평가 등에 기인
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 관련주의 강세 등으로 0.1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장중 낙폭이 축소
 유로화가는 0.2% 상승, 엔화는 강보합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과 양적긴축 전망 등이 반영
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4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00.3원, +2.5원) 0.2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1/5일	1/4일	전일대비			1/5일	1/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700.6	4,793.5	-1.94%	국채 금리 10y	미국	1.71%	1.65%	6bp
	유럽	494.35	494.02	0.07%		독일	-0.08%	-0.12%	4bp
	중국	3,595.2	3,632.3	-1.02%	CDS 5y	한국	23bp	21bp	2bp
	일본	29,332	29,302	0.10%		중국	40bp	39bp	1bp
	한국	2,954.0	2,989.2	-1.18%	위험 지표	EMBI+	-	382	-
환율	달러지수	96.18	96.26	-0.09%		VIX	19.73	16.91	16.68%
	유로화	1.1314	1.1287	0.24%		WTI유	77.85	76.99	1.12%
	엔화	116.11	116.16	0.04%	원자재	구리	438.9	447.5	-1.93%
	위안화	6.3639	6.3726	0.14%		금	1,810.4	1,814.6	-0.23%
	원화	1,196.9	1,194.1	-0.2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2021년 12월 FOMC 의사록, 조기 금리인상 및 양적긴축을 논의

- 정책위원들은 수급이 팽팽한(tight) 노동시장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 시, 시장의 예상보다 신속한(3월)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. 대부분의 위원은 금년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기존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
-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자산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 피력. 또한 금년에 최소한 3번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. 금리인상 요건 가운데 최대고용이 충족되지 않았으나, 양호한 고용증가가 지속되면 이 또한 가능하다고 설명
- 특히 일부 위원은 금리인상 종료 이후 보유자산(8.8조달러) 축소를 의미하는 양적긴축 개시를 주장. 양호한 경제성장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양적긴축은 이전(2017년)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첨언
- 양적긴축 시작은 금리인상 이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, 이는 이르면 금년 여름 시행을 의미. 시장에서는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파적(hawkish)이라고 평가. Charles Schwab의 Kathy Jones는 이번 의사록에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진단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2021년 12월 ADP 민간고용, 예상치 큰 폭 상회. 오미크론 영향은 제한적

- 노동부에 따르면, 같은 달 민간고용 증가건 수는 80.7만건으로 전월(50.5만건) 및 예상치(37.5만건)를 모두 상회. 12월 노동시장에서 서비스 부문이 신규고용을 주도하는 가운데 오미크론의 영향은 아직 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

■ 씨티그룹, S&P500 지수의 연말 목표가를 상향 조정(4900→5100)

- 스캇 크로너트 스트래티지스트는 기업이익의 증가세가 2년 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. 다만 증시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나, 연준이 예상보다 강력한 통화긴축에 나서면 밸류에이션에 하방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

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정점에 근접

-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2022년에 역내 물가상승 압력이 둔화될 수 있다고 관측. 특히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

■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, ECB는 인플레이션 전망 상승 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

- 카자크스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(2%)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, ECB가 금리인상 혹은 자산매입 중단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언급

■ 유로존 2021년 12월 종합 PMI(확정치), 9개월래 최저.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영향

- 해당 지수는 53.3으로 속보치(53.4) 대비 소폭 하락.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등이 서비스부문 경제활동을 저해. Capital Economics의 Jack Allen-Reynolds는 2021년 말의 유로존 경제활동이 확장 국면에 있으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

■ 중국 총리, 1/4분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대

- 리커창 총리는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타격을 받은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. 또한 경기하강 압력에 직면하여 고용, 금융, 무역, 투자 등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

■ 중국 인민은행, 춘절 연휴 앞두고 유동성 공급에 나설 계획

- 해당 연휴를 앞두고 기업과 가계의 현금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달 하반기에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유동성 부족분을 보충하겠다고 발표. 중국증권저널은 이를 위해 역레포 혹은 중기대출제도(MLF) 등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

■ 일본은행 관계자, 인플레이션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

- 에너지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2023 회계연도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소폭 상향(0.9%→1.0%)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. 다만 목표치인 2%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. 또한 일본은행의 자산매입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/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2021년 12월 마켓 종합 PMI(확정치): 57, 11월(57.2), 속보치(56.9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/6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2021년 12월 ISM 서비스 경기지수, 2021년 12월 5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
- 미국 2021년 11월 제조업 수주, 무역수지
- 독일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, 중국 2021년 12월 차이신 서비스 PMI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일본 엔화 약세, 여타 주요국과의 물가통화정책 경로 비동조화 등에 기인 - 블룸버그**
(Yen's Tumble Is Even Worse Than It Looks, JPMorgan Index Shows)
 - 이번 주 엔화는 달러화 대비 116엔대를 기록하며, 5년래 최저치. JP모건에서 일본의 주요 교역상대국 물가 등과 비교하여 측정한 실질실효환율은 신저점을 기록. 이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다른 대부분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
 - 또한, 연준과 영란은행의 공격적인 통화긴축 행보와 달리 일본은행은 낮은 물가상승률, 경기회복 둔화, 코로나 19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연.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 감소도 엔화 약세의 원인
 - Capital Economics의 Marcel Thieliant는 향후 미국 금리인상 등이 엔화 약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하며, 올해 달러당 120엔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
- **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, 성장과 혁신을 위협 - Financial Times**
(China's business crackdown threatens growth and innovation)
 - 중국 정부의 민간 기업 규제가 강화되면서, 몇몇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상장을 철회. 이에 일부 통신서비스 기업 등 민간 기업이 미국 증시 상장에서 규제를 우회하는 가변이익실체(Variable Interest Entity; VIE) 구조를 사용
 - 정부는 그동안 이와 같은 행태를 묵인해 왔으나 향후 금지할 가능성. 당국의 규제정책은 사실상 정보수집 및 사이버보안 분야의 민간기업 국유화로 이어질 소지. 이는 40년간 민간 기업들이 주도했던 혁신과 성장전망을 훼손할 우려
- **미국 국채수익률, 연준의 긴축강화 움직임에 스티프닝 현상 지속될 전망 - 블룸버그**
(Treasury Yield Curve Steepens on Bet Fed Sticks to Hawkish Path)
- **2022년 글로벌 증시, 인플레이션 등 위험요인 산재로 리스크 대비가 필요 - Financial Times**
(Investors should brace for limited gains in 2022)
- **미국 기업, 금리인상에도 회사채 만기 연장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- WSJ**
(Companies Expect Funding to Stay Cheap, Despite Looming Rate Increase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